제9강, 해체의 뒤안길 2-1
－□해체□에서 □자유□로

(1교시)

* 기존 해석에 대한 반성 : □노장사상은 유가적 사상에 배치되는 해체적 사상이다.□
⇒ 원형에 대한 철저한 해부가 바탕이 되지 않은 문화적 코드로서 재해석한 것일 뿐. 실제로 당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근거 없는 비판, 혹은 성급한 논리의 오류이다.

1. 거리 두고 읽기－?노자? 제1장에 대한 해석의 예

[원문]

1 道可道, 非常道 ; 名可名, 非常名.
2 無名, 天地之始 ; 有名, 萬物之母.
3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
4 此兩者同, 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번역]

길을 길이라 말하면 늘 그러한 길이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우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하늘과 땅의 처음이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온갖 것의 어미라 한다.
그러므로 늘 바램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바램이 있으면 그 가생이(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김형효)를 본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와서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 그 같음을 가믈타고 한다.
가믈고 또 가믈토다! 뭇 묘함이 모두 그 문에서 나오는도다! (김용옥 역)

[해설]

1) **[왕필의 주석]** 언표할 수 있는 도와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구체적 사태□와 □구체적 사물□을 가리키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표할 수 없다□고 또 □이름 지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可道之道, 可名之名, 指事造形, 非其常也. 故不可道, 不可名也.)

* 指事造形(지사조형): 구체적인 사태/본뜨다 → 문자와 뜻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2교시)

2) **[하상공의 주석]** 경술과 정교의 도를 말한다. 스스로 그러하게 오래 사는 도가 아니다. 늘 그러한 도는 마땅히 □무위無爲□로써 정신精神을 기르고 □무사無事□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러한 도는] 빛을 머금고 밝음을 감추며 자취를 없애고 실마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칭하여 말할 수가 없다.(謂經術政敎之道也. 非自然長生之道也. 常道當以無爲養神, 無事安民, 含光藏暉, 滅跡匿端, 不可稱道.) (→중국적인 지배질서가 확립되기 전의 주석)

* 經術(경술)의 두가지 의미: 1,경전(고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2.경전속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
* 政敎(정교): 정치와 교화. 유가적 의미.
* 神(신): 생명력의 근원
* 無事(무사):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쓸데없는 일(거대 과업).

⇒ 왕필과 하상공의 주석의 시대적 간극:
1.왕필-국가질서 형성 이후 등장. 이미 실현되는 유가의 질서가 경전 속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
2.하상공-질서가 성립되기 전, 왕권확립자체가 문제인 시기에 등장. 황제가 자기자신의 몸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동시에 국가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황제로서의 신체적 생명과 국가의 생명에 관한 언급)

(3교시)

*참고서적: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데리다를 통해 본 노장의 사유문법>

3) **[김형효의 해석]** 도가철학은 유가에 의해서 뿌려진 주체의 형이상학, 현존의 구조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常道 無名 天地之始 無欲 觀其妙
道 兩者同出而而名=玄=衆妙之門
非常道 有名 萬物之母 有欲 觀其徼
이질적인 것(異他性) 사이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힘) → 妙(묘)
道
만상의 모든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 → 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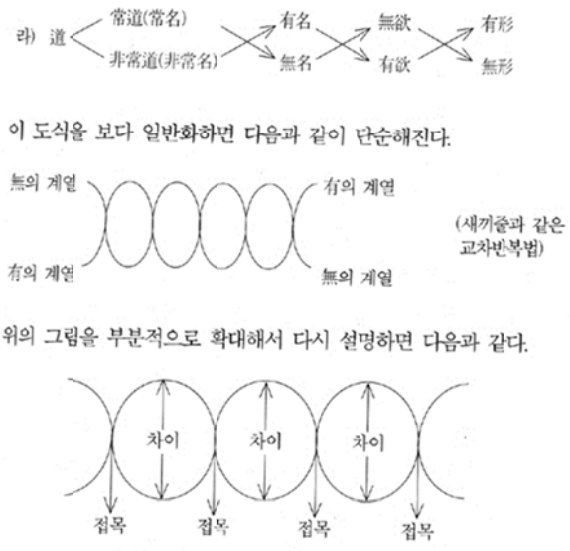
[김형효에 의한 표]

※ 가까이 다가가 읽기－『노자』 제2장에 대한 해석의 예

[원문]

1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

2 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



3 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敎.

4 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爲而不恃.

5 功成而弗居，夫唯弗居，是以不去.

[번역]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할 줄 안다. 그런데 이것은 추한 것일 뿐이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할 줄 안다.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고, 뛰어남과 못

남은 서로 겨루며—두드러지게 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고, 음악과 노랫소리는 서로 어우러지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무위의 일에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그에 의해 지어지는데도 성인은 아무런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낳으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하면서도 기대려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에 안주하지 않으니, 오직 그에 안주하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해설]
1) **[왕필의 주석]** □아름다움□(美)이란 사람의 마음이 나아가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추함□(惡)이란 사람의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기쁨과 노여움과 같은 것이고, 좋음과 좋지 않음은 옳음과 그름과 같은 것이다. 기쁨과 노여움은 그 뿌리가 같고, 옳음과 그름은 그 나오는 문이 같다. 따라서 어느 한 쪽만을 들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는 □스스로 그러한□ [인간의 정을] 나열한 것이니 어느 한 쪽만을 들 수 없는 □양상 범주□(名數(명수))이다.(美者, 人心之所進樂也; 惡者, 人心之所惡疾也. 美惡猶喜怒也, 善不善猶是非也. 喜怒同根, 是非同門, 故不可得而便擧也. 此六者, 皆陳自然, 不可便擧之名數也.□)

이에 따르면 왕필은 美惡/喜怒?是非/善不善을 동일한 층위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왕필은 □自然□이란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 양분하는 영역이 왕필에게서는 心이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情이라는 하나의 영역 안에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仁義□는 나오지 않는다. 왕필은 이러한 自然에 해당하는 □情의 性化□—性其情矣. ?論語釋疑?—로 나아간다.

2) **[하상공의 주석]** 있는 것을 보면 없는 것을 하라는 뜻이다. 어려운 것을 보면 쉬운 것을 하라는 뜻이다. 단점을 보면 장점을 하라는 뜻이다.(見有而爲無也. 見難而爲易也. 見短而爲長也.)

⇒ **대립**과 차이의 구분. (차이의 철학. 생성의 철학. 사건의 철학의 개념 지적)
⇒ **有**와 **無**가 꼬여있으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현동玄同**)